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보험협회, 건설업 리스크 증가 경고

□ 영국보험협회(ABI: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최근 영국의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한편, 건설회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.

- ABI는 영국의 건설회사가 대체적으로 3%이하의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중 새로운 건설수주가 급감하였고, 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분석함.
- 2010년 초에는 건설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 추세를 보여 건설회사의 이와 같은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, 2월 말 현재 실질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함.
- 상업용 건설과 공공 인프라건설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프라건설은 특히 정부가 학교, 병원 등 대규모 빌딩건설에 대한 건설가격 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 금년 중에 크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ABI는 건설경기의 악화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의 파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건설회사에 신용보증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함.

- ABI는 2010년 중 건설회사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에게 신용보증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함.
- 건설회사의 파산은 2009년 전년동기대비 33% 증가하여 약 3000개의 건설회사가 파산한 것으로 보고됨.
- 그러나 이러한 파산은 정부가 건설회사에 대한 조세 유예 프로그램 연기를 중단할 경우 금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.
 - 영국은 금융위기 동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동성지원프로그램(Business Payment Support Service)을 도입하였고 동 프로그램에 의해 건설회사는 조세 유예의 혜택을 받아옴.
 - 그러나 ABI는 동 프로그램으로 인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건설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며, 동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파산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, 2/22)